

고구려인의 服飾文化 고찰

— 集安地域 古墳壁畫를 중심으로 —

충청전문대학 의상과
전임강사 양 경 애

目 次

I. 序 論	VI. 宗敎生活 관련 服飾文化
II. 政治生活 관련 服飾文化	VII. 結 論
III. 軍事生活 관련 服飾文化	參考文獻
IV. 經濟生活 관련 服飾文化	ABSTRACT
V. 文化生活 관련 服飾文化	

I. 序 論

고구려가 처음 자리잡은 곳은 동가강과 독로강 유역을 포함한 압록강 중하류 유역 일대였다. 압록강 중류 서쪽에 터잡고 있는 집안은 고구려 전·중기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였는데 그 유적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400여년간 고구려의 수도였던 이 지역은 장수왕 15년(427)의 평양遷都 이후에도 고구려 사회 전체에 평양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유지하였다. 지금까지 이 일대에서 발견된 23기(집안 22기, 환인 1기)의 고분벽화는 고구려 사회에서 집안지역이 지니고 있던 특수한

위치를 거듭 확인시켜주는 실물유적이다.¹⁾

본 연구는 집안지역 고구려인의 복식문화를 고찰하기 위해 당시 제작된 고분벽화 중 9기를 활용코자 한다.²⁾ 주지하다시피 고분벽화는 당대인의 현실인식과 세계관을 비롯하여 의식주 그리고 풍속·종교 등 생활 전반이 포괄적으로 묘사된 일상생활과 정신생활의 축소이자 문화의 결정체이다. 고구려 사람들은 죽은 후에도 영혼이 살아 있다고 믿었기에 고분 안을 지상생활환경처럼 장식하였다. 그런가 하면 신앙 및 종교적 염원을 담고 있는 상상화들을 현실에 의거하여 다양하게 펼쳐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고분벽화의 묘사대상과 주제내

1) 전호태, 고구려 고분벽화, 한국방송공사, 1994. p.9

2) 연구자료로 사용한 벽화고분의 편년은 전호태의 편년기준을 사용했다.

① 각저총, 5세기 초 ② 무용총, 5세기 초 ③ 마선구 1호분, 5세기 중 ④ 장천 1호분, 5세기 중
⑤ 통구 제12호분, 5세기 중 ⑥ 삼실총, 5세기 중 ⑦ 통구 사신총, 6세기 초 ⑧ 오회분 5호묘, 6세기 초
⑨ 오회분 4호묘, 6세기 초

董長富와 文琳은 「집안 고구려 고분의 벽화」에서 벽화고분의 편년을 다음같이 잡았다.

① 각저총과 무용총은 4세기 말부터 5세기 전엽
② 삼실총과 장천 1호분은 5세기 말부터 6세기 초
③ 오회분 4호와 오회분 5호묘는 6세기 중엽

용에 따라 현실주제화, 비현실주제화, 장식무늬로 대별해볼 수 있을 것이다.³⁾ 본고에서는 현실주제화에 속하는 초상화, 인물초상화, 자연화 중에서 인물풍속화를 통해 정치·군사·경제·문화·종교생활 관련 복식문화를 다루고자 한다.

그러나 고구려 전기간에 걸친 복식문화를 지역별·시기별로 비교 연구하지 못하고, 주로 5~6세기의 집안지역의 복식을 중심으로 고찰하였음을 아쉽게 생각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문헌자료로 중국 史書인 「三國志」魏書 東夷傳 및 「舊唐書」와 국내 문헌자료인 「三國史記」, 「三國遺事」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고구려 복식문화의 言語的 機能을 이해하고, 특정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복식 형태 및 종류를 알 수 있으리라 믿는다. 나아가 텔레비전 같은 大衆媒體나 歷史小說 같은 데서 고구려 시대 인물들이 착용한 복식이 잘못 그려지거나 왜곡되게 묘사하는 폐해를 조금이나마 줄이는데 일조했으면 한다.

II. 政治生活 관련 服飾文化

1. 國內外 政勢와 복식관계

해와 달의 아들(日月之子)임을 자처한 시조 동명왕이 고구려를 세운 후 평양 천도 전까지 국내의 상황에 따른 복식문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세기 후반 태조 때에 강력한 집권력을 지닌 고대국가 체제가 확립되었다. 대내적으로는 여러 '那'들이 상호통합을 거쳐 5部가 세워졌다. 이 중 중앙의 桂婁集團이 나머지 네 집단을 강력히 통제하기에 이르렀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군현과의 교섭은 중앙 정부이던 계루집단에서만 취급하여 그

교섭창구를 일원화하였다.⁴⁾

평양 천도 이전까지 동예·옥저·부여를 통합하고 낙랑과 대방을 축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복식문화가 전파·수용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구려 <광개토왕비>에 의하면 395년에 고구려와의 싸움에서 패배한 백제는 주민 1,000명과 가늘고 곱게 잔 베 1,000疋을 공물로 바치면서 화친할 것을 제안했다 한다.⁵⁾ 이로 보아 고구려는 인접 국가와의 전쟁 등을 통해 다른 나라의 직물을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태조왕 때 숙신의 사신이 와서 紫狐의裘와 白鷹·白馬를 바쳤다는 기록이 있다.⁶⁾ 이때 숙신에서 바친 자색의 여우 털가죽옷은 왕이나 상류계층의 옷으로 수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 특권계층에서 이미 肅慎이나 魏나라 등 외국과 복식관련 물품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미천왕대부터 평원왕대에 이르는 시기에는 134회라는 빈번한 중국 제왕조와의 외교기사가 보인다. 그 중 104회가 북조와의 관계기사이고 남조와는 30회에 불과하다.⁷⁾ 따라서 북조문화는 고구려 복식문화에 다소라도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실생활에서 고구려인들이 중국복식을 입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지만 6세기경 조성된 五罽罽 4號·5號 壁畫에는 冕旒冠을 쓴 신선이거나 南朝時代에 고위층의 상징이었던 부채 등 다양한 執物을 들고 있는 신선을 볼 수 있어 神仙服飾에서의 중국 영향을 볼 수 있다.

장수왕 15년(427)에 환도에서 평양으로 천도한 후 북방수비를 위해 後魏와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멀리 西域과도 교류하기 시작했다. 「隋書」에 따르면 고구려는 서기 436년에 요서의 북연 황제 밍씨를 멸하고 후위와 수교함으로써 처음으로 서역과 통하여 樂伎를 求得하였다. 이것은 고구려와

3) 조선 미술사, 조선 미술가 동맹 편, 한마당, 1989, pp.47~49

4) 노태돈, 고구려의 성립과 변천, 한국고대사론, 한길사, 1988, pp.35~36

5) 홍희유, 조선 중세 수공업사 연구, 지양사, 1989, p.64

6) 김부식 저, 이병도 역주,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제 6대 태조왕조, 을유문화사, 1994

7) 김입규 외 2인, 한국민족문화와 의식, 정훈출판사, 1992, p.67

서역 간의 직접적 접촉과 내왕을 시사해 주는 최초의 문헌기록이다.⁸⁾ 이를 계기로 고구려와 서역, 특히 突厥 간의 내왕은 부단히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2. 官階組織과 복식

고구려에 존재한 신분은 크게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구분된다.⁹⁾ 여기서는 정치생활 관련 복식문화를 고찰하므로 지배계급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배계급은 왕과 그 아래 여러 ‘加’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가들은 다시 ‘大加’와 ‘小加’ 즉 높은 귀족과 낮은 귀족으로 갈라진다. 그 사이에 또다시 몇 가지 신분등급이 있었다. 「三國志」나 「後漢書」에 의하면 대가는 2~3세기까지 주부의 벼슬보다 더 높은 벼슬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대가는 소가를 거쳤으며 대가와 소가의 관모는 종류가 달랐다. 예컨대 冠帽, 官服, 띠의 색깔과 사용재료, 형태 등으로 관등급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았다. 대가들 내부에도 서로 다른 신분규제가 있었는데 古鄒加, 候王級이 따로 있고 고분에 벽화를 그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 따로 있었다. 하지만 지배계급의 대다수는 소가들이었다. 그들은 幘대신에 折風을 썼다. 2~3세기까지의 소가에는 대형, 소형, 승(형), 사자, 조의, 선인 등의 벼슬등급을 가진 자들이 속하였다. 또한 지배계급의 하층 자리를 차지한 자들은 향류라 불렸다. 그들은 지방출신의 부유한 귀족토호세력들이었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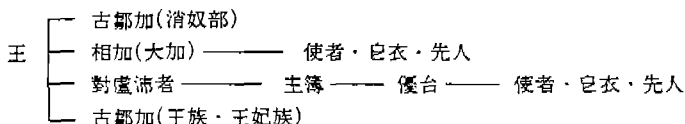
「新唐書」 고구려전에 따르면 지배계층은 푸른색, 붉은색 비단모자와 옷을 입었는데 옷은 통소매이고 바지는 통이 넓은 것을 입었고 금은단추를 달고 흰가죽띠에 누런 가죽신을 신을 수 있었으나 평민 남자들은 거친 삼베옷을 입고 머리에는 고갈(弁)을 쓰고 여자들은 머리수건(巾幘)을 썼다고 한다.¹¹⁾

舞踊塚의 주인공은 14명이 연출하는 가무에 한 명의 관람객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그는 매우 높은 귀족신분으로 저고리와 통넓은 바지를 입고 鞋를 신었다. 머리에는 角이 진 작은 모자를 쓰고 있는데 그 명칭이 학자마다 매우 다양하다. 즉 김정호는 「고구려 고분벽화복식과 사회계층」에서 小冠이라 표현했고, 중국학자 이전구는 「길림집안통구 제12호 고구려고분벽화」에서 方幘이라 칭했으며, 전호태는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冠이라고 했다. 3~5세기에 처음 고구려 관모형태에 대한 기록을 남긴 중국측 문헌기록인 「三國志」와 「後漢書」의 기사내용은 당시의 수도였던 집안지역 고구려인의 복식관련 기사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는데 그들은 고구려 귀족 남자의 대표적인 관모로서 책과 절풍을 들고 있다. 즉 책과 절풍을 계급과 신분을 상징하는 관모로 서술했는데 높은 귀족의 고분으로 추정되는 고분벽화를 통해 문헌에 기록된 책과 절풍을 동시에 볼 수 있으리라 가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고분벽화를 통해 절풍의 형태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책의 형태로는 대표적으로 안악 3호분과 덕흥리 고분벽화에 보이는 뿔이 갈라진 책이나 뒤가 솟은 책의 형태를 제시

8) 무함마드 칸수, 신라·서역교류사, 단국대학교출판부, 1994, pp.273-278

9) 김철준, 한국고대사회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0, p.231에서 참고:

「삼국지」위서 등이전 기사에 의거하여 고구려 관제조직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10) 조선고대 및 중세초기사 연구, 교육도서출판사, 1992, pp.105~106

11) 상계서, p.107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古墳 주인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안악 3호분과 덕흥리 고분벽화에는 고구려 남자의 대표적 관모인 절풍의 존재를 접할 수 없다. 그러나 집안지역의 대부분 고분벽화에서는 절풍을 쓴 신분계층을 대할 수 있다. 또한 절풍을 쓴 인물보다 신분이 높은 고분벽화의 남자 주인공들은 이 무용총 고분벽화 주인공이 쓴 관모와 유사한 형태의 모자를 쓰고 있어 이것을 문헌기록에서 말하는 책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림 1-1, 1-2) 책으로 보이는 관모를 쓴 귀족 남자/ 무용총, 장천 1호분

集安通溝 第12號墳(馬槽塚)의 남주인공은 하얀 책에 寬領合衫의 백색상의에 허리띠를 띠고 회색 흑점이 있는 꽃무늬 바지를 입었다. 通道 좌측 龕室의 後壁에 그림 그리는 장면이 있는데, 그림을 그리는 인물은 머리에 황색책을 쓰고 저고리와 노란색 바지를 입고 소매와 허리를 즐라매었다.¹²⁾

三室塚의 11인 행렬도에는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 복식이 함께 묘사되었다. 11명의 행렬도 중 두번째, 세번째, 아홉번째 인물은 크기를 크게 그려 귀인임을 표시했다.¹³⁾ 남자 귀족복식의 특징은

승려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주인공 역시 책으로 보이는 관모를 썼다. <그림 1-1>

長川 1號墳에서도 팔각정의 虎皮 위에 앉아 群舞를 즐기고 있는 귀족부부를 볼 수 있는데 남자 주인공은 흰색의 책을 썼다. 전실 후벽에 그려져 있는 신분이 높은 두 명 역시 마름모꼴무늬와 정교한 점무늬가 있는 저고리를 입고 책을 썼다. <그림 1-2>

황색의 책을 쓴 것이며, 또 대부분 가슴 앞에 손을 모으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고구려인들이 가진 특유한 ‘行必插手’의 풍속이다.¹⁴⁾ <그림 2>

여자 귀족의 관모는 남자 것에 비해 발달하지 않았다. 각저총·삼실총·장천 1호분 고분벽화에서 귀족 여자는 중국측 문헌기록에 기록된 건귀울 쓰고 있다. 대개 흰색이나 미색으로 표현된 권귀울은 그 형태가 단순하고 색상 또한 소박하지만 머리에 씌워지는 부분에만은 노란색이나 붉은색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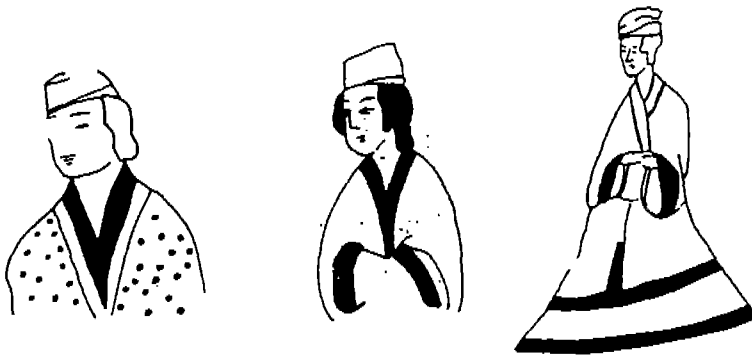
12) 최무장 역, 고구려 발해문화, 집문당, 1985, pp.33~36

13) 김정호는 「고구려 고분벽화복식과 사회계층」 p.51에서, 삼실총 행렬도 중 양산을 들고 있는 하인 뒤로 한 사람의 여자 어린이와 그 뒤로 두 남자 어린이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이전복은 「집안 고구려 무덤 연구」에서 다음같이 썼다. ‘대열 뒤를 따르고 있는 열번째와 열한번째 사람은 황색 절풍을 쓰고 붉은띠를 턱 아래에 매고 수염이 조금 있다. 전자는 황색 검은점이 있는 짧은 저고리에 적갈색 큰 바지를 입고 허리띠를 매고 두 손을 맞잡았다. 후자는 나이가 많고 허리가 좀 구부러졌고 짧은 수염이 있다. 적갈색 저고리에 허리띠를 하고 황색 바지를 입었다.’ 따라서 크기를 작게 그린 것은 나이 어림을 표시한게 아니라 신분 의 낮음을 묘사한 것이다.

14) 전개서, pp.109~114



(그림 2) 책과 질풍/ 삼실총 11인 행렬도 중 제2, 제5, 제10, 제11번째 인물



(그림 3-1, 3-2, 3-3) 귀족 여자의 건립/ 무용총, 장천 1호분, 삼실총

비교적 폭넓은 선을 돌려 장식하고 있다. <그림 3-1, 3-2, 3-3>

Ⅲ. 軍事生活 관련 服飾文化

고구려 군사제도에 관한 역사문헌 내용은 극히 미약하다. 그러나 고구려가 갑옷, 활과 화살, 그리고 창검, 矛戟, 弩, 飛石機 등의 간단한 무기를 가지고 중국군의 침략을 막아내는데 성공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고구려의 군사제도가 아주 효과적이었음은 분명하다. 고구려 군대는 6개 軍과 3개 衛로 구성되었고, 각 軍은 大模達과 末客의 지휘를

받았다. 「通典」에는 이밖에도 領千人이라는 계급이 있었다고 전한다. 아마도 이 영천인은 1천명의 군사들을 지휘하는 고급장교였으리라.¹⁵⁾

군사생활 주제를 다룬 고분벽화는 드넓은 만주 벌판에서 용맹을 떨친 고구려 무사들의 전투장면을 형상화한 그림으로 내용은 攻城, 馬戰, 斬俘 및 군대 장비 등의 방면을 포함한다. 고구려 군대의 攻城略地 화면은 삼실총 제1실 북벽에 그려졌다. 여기서는 모두 다섯 명의 복식을 살펴볼 수 있다. 鐵甲을 쓴 말위에서 싸움을 벌이는 두 장군은 머리에 투구를 쓰고 몸에는 갑옷을 입었다. 말을 타고 싸우는 장군 중 성을 향해 달아나는 앞 사람의

15) 이육, 고구려 민족형성과 사회, 교보문고, 1984, pp.222~223

투구는 철로 주조한 은근 투구이고, 쫓고 있는 뒷 사람의 것은 雙角式 甲片의 투구인데 후자가 고구려 장군 같다. 벽화에는 그가 생전에 고구려왕을 따라 성지를 공략하여 수훈을 세운 군사생애의 한 측면을 묘사한 것 같다. 즉 호태왕 통치 하의 고구려 군대가 성을 치고 땅을 점령하는 정경이다.¹⁶⁾ 벽화 중의 고구려 보병은 일반적으로 갑옷을 입지 않고 칼과 창을 들었다. 기병은 갑옷을 입고 긴 창과 긴 칼을 잡았다. 단 말은 대부분 철갑을 씌우고 장속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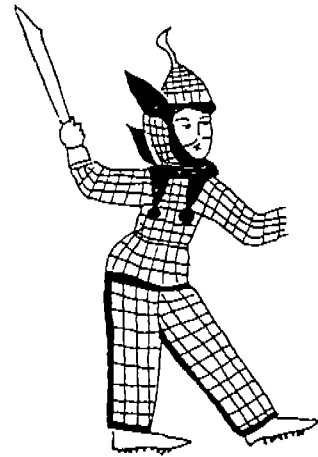
삼실총 제2실 서쪽 벽에는 눈알이 불거지고 팔자수염을 기른 사나운 인상의 장군을 그렸다. 투구에는 붉은색으로 만든 兩角이 달려있다. 상체의 철갑은 팔을 드러내고 가슴과 등을 보호하여 무기를 휘두르기에 편리하도록 했다. 목깃은 목을 보호할 수 있게 위로 높이 올라왔다. 또 특이한 것으로 동그란 형태의 붉은색 장식이 목밑에 늘어져 있고, 어깨에서 양 겨드랑이 쪽으로 내려온 두 줄의 붉은색 장식드림이 있다. 신분과 계급 표시로 사용된 게 아닌가 한다. 왼손에는 허리에 찬 環首

刀를 잡고 오른손은 긴 칼을 잡았으며, 바지단 형태는 앞이 짧고 뒤가 긴 형태로 특이하다. 신발 바닥에 쇠못을 박은 釘履를 신고 있다. 앞에서 본 攻城圖 중의 장군 복장과 비슷하다. 만일 무덤 주인의 형상이 아니라면 무덤 주인과 비슷한 귀족 무사로 추정된다. <그림 4>

통구 제12호 고분벽화에는 騎馬出戰과 斬俘 두 개 부분이 그려져 있다. 말 탄 무사는 손에 미늘창을 잡고 투구와 갑옷을 착용했다. 전마도 갑옷과 철갑을 썼다. 말 앞에 세 사람이 있는데 형상을 분간하기 어렵다. 이 장면은 기세가 웅장하고 전체 벽의 약 2/3정도를 차지한다. 그가 입은 갑옷은 대개 앞서 본 장군의 복장과 비슷하지만, 단 차이가 있는 곳은 갑옷이 팔까지 전부 札甲으로 된 점이다. 붉은색으로 바지 옆선과 단 그리고 갑옷 윗부분의 단과 소매 끝을 장식했고 앞가슴위로 장식드림이 있다. <그림 5>



(그림 4) 장군의 전투복/ 삼실총



(그림 5) 쌍각식 투구와 붉은 장식선/ 통구 제12호분

16) 철화. 아영, 고구려 벽화 중의 전쟁 소재에서 본 고구려 군대와 전쟁, 중국학계의 고구려사 인식, 대륙연구소 출판부, 1991, pp.200~201

이처럼 갑옷과 투구, 釘履 등은 대표적인 방어용 병기이다. 고구려의 갑옷은 쇠로 만든 수많은 패 쪽을 나란히 꿰어서 만든 이른바 비늘갑옷 또는 札甲이라고도 하는데, 찰갑은 신라와 가야 지방에서도 자주 출토된다. 서역개통과 더불어 한대에 이미 서역마가 수입되었고 5胡 16國과 南北朝 시대에 이르러는 사산조식 鐵甲을 비롯한 서역 鎧甲馬具가 대량 유입되었다.¹⁷⁾

IV. 經濟生活 관련 服飾文化

1. 사냥과 의복재료

고구려인의 경제생활 중에서 어렵은 농업경제의 보충이며 또한 귀족들의 여흥의 일종이었다. 피지배계층은 귀족에게 양식과 함께 고기와 소금을 제공했다. 또 야생 동물을 사냥하여 고기는 먹고 가죽은 옷을 만들어 의식 수요를 충당했다.¹⁸⁾ 따라서 가죽이나 모피류를 방한용 의복재료로 폭넓게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고구려인의 가죽공예 기술 수준은 일본에 전해준 기술을 참고하여 추측해 볼 수 있다. 「日本書記」권15 인현 6년 이해에 의하면 일본 야마토 정권은 히따까라라는 사람을 고구려에 파견하여 고구려 장공인을 데려오도록 하였으며 히따까는 수류지(기), 노류지(기) 등의 갖바치 장공인들을 데리고 갔다. 고구려 갖바치들은 야마토지방의 야마베 고을에 정착하여 갖바치 마을을 이루었다고 한다.¹⁹⁾

지배계층의 사냥활동은 「三國史記」에 기록되어 있다.²⁰⁾ 고구려 역대 왕들은 사냥과 순찰시에 푸른

빛을 띠거나 보라빛을 띤 노루와 흰 사슴 같은 진귀한 동물들을 사로잡았다고 한다. 태조왕은 사냥중에 흰 사슴을 잡자 “잔치를 베풀어 신하들과 술을 마셨다”고 전한다. 나아가 고구려 왕들은 매해 음력 3월 3일이면 수도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동산에서 사냥대회를 개최하여 신하와 병사들과 함께 멧돼지와 사슴을 잡아 山神과 水神에게 제물을 바쳤다.²¹⁾

이같은 문헌기록과 함께 고분벽화의 수렵도는 현재 집안지역에서 발견한 고분벽화의 36.8%를 차지한다. 이는 수렵이 고구려 사람들의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설명한다.²²⁾

무용총 玄室 서쪽 벽에 그려진 수렵도는 고구려인이 호방하고 활달한 기마민들이었음을 잘 웅변하고 있다. 장천 1호분에서는 봄날 야외에서 행해진 갖가지 유희와 사냥장면이 그려져 있다. 착용한 의복의 대부분은 색상이 밝고 화사하며 경쾌하다.

狩獵 복식은 활동성을 고려해 경쾌하고 간편한 것이 특징이며 머리에 쓴 鳥羽冠이 대표적이다. 절풍에 새깃털이나 꿩지털을 꼽은 조우관은 주로 사냥을 행할 때 활동성이 큰 옷과 함께 착용한게 대부분이며, 예외적으로 무용수 先導者가 꼽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림 6> 그러나 꽃은 깃의 종류와 모양의 다양성으로 보아 當代에는 분명 신분상징적 의미를 부여했다고 본다. 중국에서도 武冠에 鷩尾(꿩의 일종)로 장식하여 용맹과 투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²³⁾ 고구려인들이 꽃은 깃털에도 종류와 형태가 다양한 점으로 보아 비단 장식적 의미 뿐 아니라 상징적 의미를 부여했다고 본다. 「일본서기」 권 14 용략 8년 기사에 “鷄之雄者”

17) 전계서, p.49

18) 경철화, 고구려 벽화 중의 사회·경제, 중국학계의 고구려사 인식, 대륙연구소출판부, 1991, p.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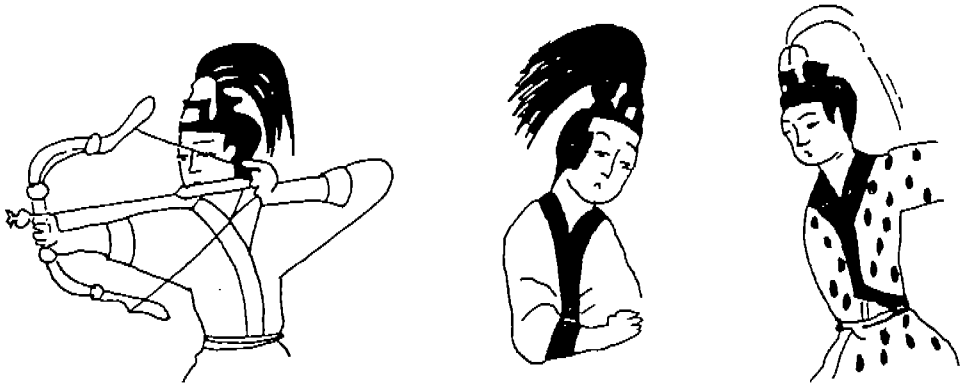
19) 전계서, p.193

20) 삼국사기, 권 13 유리왕 2년 ; 권 14 민중왕 3년 ; 권 17 중천왕 15년 ; 권 18. 장수왕 2년 ; 권 15. 태조왕 10년, 46년, 55년 ; 서천왕 7년, 19년

21) 전계서, p.166

22) 전계서, p.130

23) 주석보, 중국고대복식사, 단청도서유한공사, 중화민국 75년, p.71



(그림 6) 다양한 형태의 烏羽冠/ 무용총

라 하여 수닭 깃털을 머리에 꽂은 고구려 병사를 뜻하고 있다.²⁴⁾ 용맹한 고구려인을 칭하는 이 말을 통해 질풍에 꽂은 깃털 종류로 닭깃의 가능성을 들수 있겠다.²⁵⁾

2. 織造手工業

고구려만 해도 수공업업을 천시하는 관념이 덜하였던 시기였다. 이로 인해 지배층의 일부 인물까지 수공업에 진출하는 등 사회적으로 수공업에 깊은 관심이 돌려졌다.²⁶⁾ 수공업 공인은 성시 주민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城民’이라 불리어, 농업·어업에 종사하는 ‘谷民’과 구별했다.²⁷⁾

남자는 밭갈이 하고 여성들은 천을 짜는 ‘男耕女織’이란 말은 수공업이 농업과 밀접히 결합된 농민들의 가내수공업이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하여 주고 있다. 여성들이 길쌈하는 모습을 그린 <織女圖>가 화가들의 주제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었으며 여성들이 베날이하는 길쌈경기가 이 시기에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구려에서는 알곡과 함께 베와 명주가 租稅 대상물이었다. 그것은 「隋書」 고구려전에 의하면 고구려에서는 일반백성에게서 “매 사람당 稅로 베 5필, 곡식 5섬씩을 받았으며 유민들로부터는 3년에 한번씩 세금을 받되 10명이 공동으로 가는데 1필씩을 내게 했다.” 베를 세로 부과한 것은 당시 고구려에서 民間織造手工業이 농가들마다 광범히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²⁸⁾ 평민들의 가장 중요한 옷감은 베였지만 베는 겨울용 의복재료로는 부적당하다. 겨울용 의복재료로는 가죽·모피와 비단 등이 있었겠지만, 평민들에게 비단사용은 금했었다. 「後漢書」와 「三國志」에 오늘날 함경북도 지역에 해당하는 ‘예’에서 누에를 쳐서 비단을 만든다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아 양잠업이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의 높은 직조기술은 국내 수공업발전에서만 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직조수공업발전에도 영향을 주었다. 즉 306년 일본이 고구려에 사신을 파

24) 한국학기초자료선집(고대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p.233

25) 무용총 현실 천장부 고임 앞면에 그려진 주작 꼬리는 조우판에 꽂은 깃털의 형태와 흡사하다. 닭을 신령스럽게 여겨 장닭의 깃털 장식을 즐기던 고구려인의 전통 신앙 및 관습이 신령스런 상상의 새 주작을 장닭과 비슷하게 표현한 듯하다.

26) 전게서, p.48

27) 전게서, p.131

28) 전게서, pp.17~18

견하여 재봉기술을 가진 여공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고 고구려에서는 형완, 제완, 오직, 혈직 등을 보내 방직기술을 가르쳤다.²⁹⁾

발달된 직조기술 수준을 반영하고 있는 집안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문양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복식을 볼 수 있다. 특히 점무늬 직물문양은 각계각층에서 두루 사용했고, 지배계층의 것은 정교하고 세밀한 꽃무늬, 마름모꼴무늬, 작은 점무늬 등을 문양 놓아 입었다. 이는 고구려 방직업의 발전 정도를 충분히 설명한다. 또 출토된 도자기 조각, 철기 잔편, 관목의 잔편에 흔히 천 무늬를 찍었거나 혹은 베천으로 감쌌다. 당시 유물로는 장천 2호분에서 출토된 23cm의 꽃무늬 비단 조각이 있다. 이것은 공예가 정교하고 섬세하며 經線이 촘촘하다. 경선으로 꽃을 나타냈는데 곱황색 바탕에 붉은 혹은 남색의 도안 꽃무늬를 짜냈다. 많이 파손되어 도안을 복원하기 곤란하지만 비단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부서진 가루는 꽃무늬 비단에 박아 넣었던 장식물 같다.³⁰⁾

이 무덤의 주인공은 대단히 권세있는 왕족이나 귀족으로 이같이 정교한 비단을 의복재료로 썼음을 알 수 있다.

V. 文化生活 관련 服飾文化

고구려는 민족문화의 濂過池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였다. 북중국이나 북방계통의 문화를 커다란 포용력으로 수용하여 더욱 같고 다듬었다. 고구려 고분벽화의 문화생활 주제화는 당대 예술의 발전 면모를 생동감 있게 펼쳐보이고 있다. 벽화에는 여러가지 악기로 연주하는 장면과 노래를 부르는 장면, 춤추는 장면, 곡예하는 장면과 함께 또 운동경기 장면들이 그려져 있어 고구려 사람들의

낙천적인 기질과 상무적 기풍이 잘 반영되어 있다.

1. 歌舞服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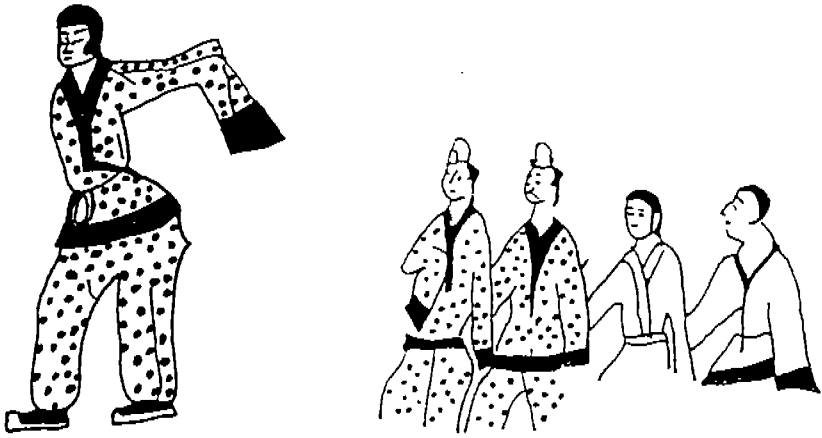
「三國志」魏書 권30 고구려전에 “나라 안의 마을들에서는 해가 지면 남녀들이 모여서 서로 노래하며 즐긴다”고 한데서 고구려인이 가무를 즐겼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 춤을 그린 대표적인 것은 무용총과 장천 제1호 고분벽화다.

「舊唐書」音樂志에 “고구려 樂人은 자주빛 비단 모자를 쓰고, 거기에 새 깃털을 장식하였으며, 노란 바탕의 큰 소매가 달린 옷을 입고, 자주빛 비단 띠를 두르고, 통이 큰 바지를 입고, 붉은 가죽 신발을 신고, 백색으로 엮은 실을 몸에 걸쳤다. 舞人은 네 명으로 머리를 상투처럼 뒤에 메고, 이마에 붉은 색을 칠하고, 거기에 금귀고리를 장식하였으며, 두 명은 노란색의 치마, 저고리를 입고 적황색 바지를 입었으며, 두 명은 적황색 치마, 저고리, 바지를 입었는데 그 소매가 상당히 길고 가죽신을 신었다. 쌍쌍이 나란히 서서 춤을 춘다.”고 하여 당시 가무인들의 복식을 단편적으로 전해준다.

무용총 벽화에는 야외에서 남녀 가수의 노래 속에 남녀 무용수가 婆娑舞를 추고 있다. 모든 사람의 동작이 같아 팔을 앞뒤로 뻗치고 긴 소매가 죽 늘어진 채로 앞으로 걸어가고 있다. 歌舞人의 복장은 형식이 좀 다르게 색채가 찬란하다. 남녀 무용수 모두 점무늬 있는 옷을 입었다. 문양있는 직물로 만든 옷은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더하여 준다. 남자 복장은 저고리와 바지 그리고 목이 짧은 신발로 대표되며, 先導者외에는 관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남자 가수의 경우 앞에 선 두 명은 절뚝을 썼고 나머지는 맨머리인데, 관모의 착용유무에 의한 등급차이가 있는 듯 보인다. <그림 7>

29) 전제서, pp.63~64

30) 최무장 역, 고구려 발해문화, 집문당, 1985, pp.130~131



(그림 7) 歌舞人 남자의 折風과 맨머리/ 무용총



(그림 8) 선장식 있는 포/ 무용총



(그림 9) 여자 가수의 머리형태/ 장천 1호분

여자 가무인 복장은 袍와 치마, 바지, 목이 긴 신발을 착용하여 남자의 것과 확연히 구별되며 복식을 통한 성차를 드러낸다. 목 아래 보이는 옷은 남자 복식에서는 볼 수 없고, 승려복식에서 볼 수 있다. 또 팔뚝 부분에 덧댄 선장식은 일반부녀의 포와도 다른 장식이다. 특히 가무복식은 긴 길이의 소매가 특징적이며 일반복식 형태와는 다른 특수복이다. <그림 8>

장천 1호분 벽화에서는 群舞와 獨舞를 볼 수 있다. 여자의 얼굴 화장으로 연지를 바르는 것은 드물지 않지만 앞 이마에 소홍색점을 칠한 것은 특

이하다. 이는 고구려 고분벽화 무용도 중에 유일하게 화장한 인물이다. 노래하는 여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머리모양을 하고 있다. <그림 9> 독무는 한 여자가 擘을 쳐서 반주하고 남자가 춤을 춘다. 무용수는 저고리에 통이 큰 바지를 입었다. <그림 10>

麻綾溝 1호묘 묘실 남벽 동단에서 남자의 雙人舞圖像을 볼 수 있다. 두 명 모두 작은 형태의 모자를 쓰고 衾의 긴 소매 저고리를 입고, 한 사람은 녹색 바지, 또 한 사람은 붉은 바탕에 검은 점이 있는 바지를 입었다. <그림 11> 통구 제 12호



(그림 10) 남녀무용수/ 장천 1호분



(그림 11) 무용수 복식/ 마선구 1호분

고분 남실 서벽 왼쪽에 있는 무용수는 붉은 바탕에 검은 꽃무늬가 있는 저고리에 통 넓은 청색 바지를 입었다. 남실 서벽 우측 벽면 역시 남자 독무이다. 노란 바탕에 검은 꽃무늬가 놓인 저고리와 파란 바탕에 검은 꽃무늬가 놓인 바지를 입었다.

고구려 벽화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당시 고구려의 직업 무용단이 이미 상당히 커다란 규모를 갖추고 있었고, 귀족 庭園內에서 가무를 연출하는 인원은 일반적으로 10여명 이상이다. 긴 소매를 흔들면서 추는 춤은 고구려 무용의 선명한 특색이다. 옷소매가 양어깨까지 닿을 수 있다는 것은 肢體에 긴장감을 덜어주고 윤곽이 유연하며, 어깨의 稜角도 최대로 경감하여 주면서 歷肩한 기본자태를 취할 수 있게 해준다. 구체적으로 손의 동작을 보면 나부끼는 긴 소매는 물을 뿌리는데 바람이 불어대는 역할과 나르는 것과 같은 가벼운 무용자세를 나타내도록 하여 준다.³¹⁾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樂人들은 자신들이 속한 身分階層보다 직물이나 색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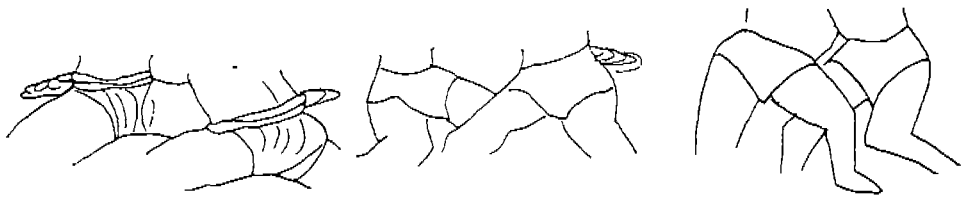
사용에 제한을 받지 않고 화려한 복장을 한다는 점이다. 즉 공연 중에 지배계층의 책이나 깃털을 꽂아 장식한 조우관 등을 착용했음을 뜻한다. 일상복과 확연히 구분되는 형태적 특징이 있는 의복을 착용하여 동작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려 했으며, 남녀 복식형태의 차이도 두드러졌다. 일부 연출자는 이마에 붉은 색을 칠해 화장하고 거기에 금귀고리를 수식하기도 했다.

2. 運動競技 服飾

태권그림은 무용종 벽화에서 볼 수 있다. 태권하는 사람들 모두 겨우 사타구니만 가리는 옷을 입었고 공통으로 상투머리를 드러내고 있다. 상투가 몹시 크게 짜여진 것으로 미루어 머리술이 많은 한창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2>

씨름경기는 角抵塚과 장천 1호분에서 볼 수 있다. 씨름꾼의 복식은 상체를 벗어부치고 하체에는

31) 전계서, pp.69~70



(그림 12) 태권복식/ 무용총

(그림 13) 씨름복식/ 각저총

(그림 14) 씨름복식/ 장천 1호분

간단한 팬티형의 옷을 입고 있으며 아무것도 쓰지 않은 머리에는 머리칼이 무척 많아 큰 상투를 들었다. <그림 13> 장천 1호분 벽화에도 건강한 두 씨름꾼들이 상투머리를 하고 하체만을 가린 채 서로 넘어뜨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림 14>

VI. 宗教生活 관련 服飾文化

벽화에는 당시의 신앙과 종교 관념에 기초하여 환상적인 소재를 취급한 비현실 주제화들이 적지 않다. 즉, 도교와 민간신앙 및 불교와 관련된 표현을 대할 수 있다.

먼저 무용총과 장천 1호분 벽화에서 승려복식 및 불교복식을 살펴보자. 무용총에는 주인과 대담하는 두 명의 승려가 있다. 짧게 깎은 머리와 검은색으로 만든 포(衲衣), 주름잡힌 치마에 鞋를 신었는데 두 명의 복장이 다소 다르다. 한 명은 목 밑에 속옷을 받쳐 입었고, 다른 한 명이 착용한 포 아래에는 것이 여러 겹 겹쳐 있다. 이들 복식은 당시 고구려 남자복식과는 형태적 차이를 보인다. 불교의 전래와 함께 중국이나 西域불교복식을 그대로 수용한 듯하다. 왜냐하면 당시 집안지역 벽화에는 神仙服裝을 제외하고 포를 착용한 남자는 한 명도 볼 수 없다. 즉 고구려 남자의 대표적 복식은 저고리와 바지인데, 이들 승려는 승려복식의 대표적 색상인 검은색으로 지은 포와 주름잡힌 치마를 입고 있다. <그림 15>



(그림 15) 僧侶服飾/ 무용총

장천 1호분에 그려진 禮佛圖는 중앙에 부처님이 양손을 배 위에 펴서 포개놓은 듯한 手印을 짓고 須彌座에 자비로운 모습으로 단아하게 앉아 있다. 부처님의 法衣는 맨살을 드러내는 편단우견이나 양 어깨를 감싸는 통견범의가 아니라 온 몸을 다 감싸고 있는 포처럼 보여 이채롭다. 특히 머리에는 육계가 보이지 않고 단지 큰 상투만 튼 듯하여 불교전래 초기당시의 부처복식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모시는 주인공 부부 위로 두 명의 飛天像이 天衣를 날리고 있어 그 유려함이 하늘을 가를 것만 같다. 또한 전실의 말각천장의 주인공 예불도 좌우 가로받침에는 연화좌 위에 각각 보살도가 있다. 보살의 양 어깨에는 천의가 흔들리고 머리에는 頭光이 있으며 菩薩冠을 썼다.³²⁾ 일반적으로 보

32) 이형구, 한국고대문화의 기원, 도서출판까지, 1991, p.188

살의 복식은 화려함을 표현하고 理想的인 모습을 돋보이게 하고자 함으로써 현실세계에서 볼 수 없는 觀念的인 복식을 묘사했다. 대표적인 의복형태는 천의이다.

고구려 때 전해졌던 道教의 전통은 예로부터 있었던 반도의 신앙과 습속, 혹은 불교 등과 혼합된 것 같다. 「三國史記」 권20에 의하면 고구려의 영류왕이 624년 당의 고조에게 도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싶다고 청했을 때 고조가 天尊像을 하사함과 동시에 「道德經」을 보내어 강의를 시키자 왕과 백성이 함께 들었다고 하는게 최초의 전파이다. 「三國遺事」 권 3에는 보장왕이 절에 道士들을 머물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따라서 고구려 말기에 도교 신앙이 퍼져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오회분 4호·5호 벽화에 나오는 신선들은 스스로 하늘을 날기도 하나 瑞獸를 타고 나는 경우가 많다. 즉 용이나 백학, 봉, 바람이나 구름 등을 타고 창공을 나는 신선들은 바로 「山海經」이나 「莊子」, 「列子」, 「淮南子」 또는 「抱朴子」에 나타나고 있는 신선이나 지인 그리고 득도자의 모습일 것이다. 이러한 표현에서 고구려인들이 雲氣를 타고 천제의 곳으로 가기를 소망하는 신선사상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³³⁾ 특히 이들 신선들은 날아오르는 점을 강조한 날개옷, 갈래옷, 깃털옷 등을 착용했다. 관모의 형태가 독특한 것으로 중국 귀인의 것과 유사한 일면도 보인다. 어쨌든 일상적으로 착용한 복식형태가 아니며 일반인의 옷과는 확연히 다르다. <그림 16> <그림 17>



(그림 16) 鳳凰을 탄 神 / 무용총



(그림 17) 鶴을 탄 神 / 오회분 4호묘

「포박자」에 의하면 신선은 물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고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으며 더위나 추위도 전혀 느끼지 않고 얼굴이나 모습을 자유자재로 隱蔽한다. 「사기」나 「초사」 등 기원전 2세기 전 저서로 생각되는 책에는 선인이 '선'으로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고 적혀 있고, 「설문」에는 오래 살고 하늘을 날오는 것이 '선'이라 써여져 있는 것으로

보아 선인이라는 것은 원래 "하늘을 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졌던 것 같다. 이것과 불사의 개념이 결합되어 「설문」에서와 같은 해석을 낳았을 것이다.³⁴⁾ 또한 풍악소리 울리며 하늘을 날고 있는 악기부는 여신들의 그림도 볼 수 있다. 이들의 특징적 의복은 바람에 흩날리는 깃털옷이든지 또는 갈래옷 등의 천의로 대표되며 머리는 틀어올린 높

33) 정경희, 한국고대사회문화연구, 일지사, 1990, p.257

34) 구보 노리마나 저, 최준식 역, 도교사, 분도출판사, 1990, p.86

은 머리를 하고 있다.

또 인간생활의 편리를 도모한 창조물을 만든 신들에 관한 그림이 있다. 즉, '불신', '쇠벼루는 신', '수레 만드는 신', '농사신' 등이 바로 그들이다. '火神(불신)'에 대한 형상은 인류역사발전에서 거대한 전환을 일으킨 불의 발견이 어떤 외적 힘이 나 신에 의해 만들어지고 발견된 것처럼 신비화하면서 불신을 숭상한 당대의 정신문화를 반영한 그림이다. 화가는 불신에 대한 형상을 의인화하였을 뿐 아니라 發火棒을 가지고 불을 일으키는 장면을 실감있게 그려 불이 다름아닌 사람의 창조적 능력의 산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³⁵⁾ <그림 18> 그의 복장은 실로 간단하기 이를 데 없다. 자연 그대로를 나타내려는 듯 풀어헤친 머리에 무릎까지

오는 짧은 소매의 포를 입고, 하체에는 아무 것도 입지 않았다. 포에는 간단한 띠를 두르고 있을 뿐 전혀 수식이 없다. 단 옷에 있어 특징적인 부분은 옷단 부분이 찢어진 것처럼 표현된 점이다.

'農事神', '鍛冶神(쇠벼루는 신)', '磨石神(돌 가는 신)', '製輪神(수레만드는 신)'의 형상과 복장도 이와 유사하여 평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표현을 통해 친근감을 조성하고 있다. <그림 19> <그림 20> 오회분 제4호묘와 제5호묘 벽화에 그려진 鐵神像을 통해 철 숭배사상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이들의 복장은 굉장히 소박한 특색을 강조하여 노동을 해야했던 일반 평민들의 복장과 근접한 듯 보인다. 머리와 옷에는 전혀 수식이 없으며 신을 신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림 18) 불신/ 통구사신총



(그림 19) 農事神/ 삼실총



(그림 20) 磨石神/ 오회분 4호묘

고구려의 종교·신앙 복식에 관한 주목해야 할 문헌기록은 「三國史記」에 있다. 기록에는 주몽이 부여에서 도망칠 때 鳥伊, 摩離, 陝父라는 세 명의 친구와 동반하였다. 주몽이 이 세 사람을 만났을 때, 한 사람은 大麻로 된 옷을 입었고, 다른 사람은 衲衣로 된 옷을, 나머지 한 사람은 水草로 된 옷을 입었는데 이들은 무당이 아니었나 추측한다. 따라서 이들 복식에 관한 연구는 고구려 사람들의

종교생활에 대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大麻로 만든 옷에 관해서는 고구려 사람들이 희고 깨끗한 옷을 즐겨 입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실로 미루어 ㄸ나라에서 1367년에 목화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흰빛깔의 대마가 朋紬와 함께 한반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옷감의 원료였으며, 이런 이유로 오늘날까지도 대부분의 경우 대마가 喪服을 만들 때 쓰인다고 추측할 수

35) 조선 미술가 동맹 편, 조선 미술사, 한마당, 1989, p.70

있다.³⁶⁾

긴 옷을 의미하는 衲衣는 검은색이며 승려들이 주로 입었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³⁷⁾ 무용총 벽화에는 분명 검은색 포를 입은 승려가 그려져 있기에 문헌기록과 일치한다. 한편 水草로 만든 옷에 관해서는 그것이 무당들의 복식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다. 단오날 춤추는 무당은 대나무로 만든 허리띠를 착용하는데 이 허리띠에는 해초와 여러 색의 천이 달려있다고 말한다.³⁸⁾

이로 미루어 보건데 고구려에서는 세 종류의 무당이 존재했던 것 같다. 즉 흰옷을 입는 무당, 검은색 의복을 입는 무당과 물 속을 잠수하는 무당의 세 종류다.³⁹⁾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하지만 고구려의 종교생활과 관련된 복식을 추측하는데 도움이 된다.

Ⅶ. 結 論

고구려 복식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접근방식이 있겠으나 정치·군사·경제·문화·종교 등 생활전반과 관련시켜 포괄적으로 고찰하는 방안이 捷徑이 될 수도 있다. 本稿에서는 고분 벽화와 옛 문헌을 통해 이러한 방법을 시도해 보았다.

먼저 정치생활 관련 복식문화를 통해 고구려의 지배계층은 다른 인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름다운 무늬로 정교하게 장식된 옷, 다양한 색상의 옷, 품이 넓은 옷을 입었다는 사실이다. 인물들의 신분과 계급 차이는 복식에 의해 잘 표현되고 있는데 小加들은 折風을 썼다. 지배계층 남자는 책을 쓰고 여자는 머리가 닿는 부분에 비교적 넓은 폭의 선장식이 있는 건립을 썼으며, 저고리 깃은 두가지 색으로 이루어진 깃형태를 띠고 있다.

군사생활과 관련해서는 「舊唐書」 고구려조에 고구려인들이 독서하고 활쏘기를 익혔다고 기록되어 있고 또 「三國志」魏書 동이전 고구려조에 “남녀가 결혼하면 곧 자신이 죽을 때 입을 수의를 만들어 놓는다”고 했으니 전쟁이 빈번했던 당시 정세 요구에 비춰 의복형태는 자연히 활동성을 중요시하였다. 고구려 무사들은 비늘갑옷 또는 札甲 갑옷을 입었음은 물론 신분을 상징하는 붉은색 장식을 가슴앞에 드리웠고 보병은 갑옷을 입지 않고 칼과 창만 들었음을 알 수 있었다.

경제생활 관련 복식문화 고찰을 통해서도 크게 狩獵服飾과 직조수공업의 알아보았다. 수렵복식은 절풍에 새깃털이나 꿩지털을 꼰 烏羽冠을 쓴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직조수공업은 베와 명주구조세 대상물이 될만큼 발달했다. 아울러 베는 물론 비단을 짜는 견직업도 발전하여 일본에 방직기술을 가르쳐 주었다.

문화와 관련해서는 歌舞복식과 운동복식으로 나누어 고찰했다. 가무복식은 남녀 무용수 모두 점무늬 있는 옷을 입었다. 남자 복장은 저고리와 바지 목이 없는 신발로 대표되며 여자 복장은 포와 치마·바지·목이 긴 신발을 착용하여 남녀가 뚜렷히 구별되었다. 가무복식의 특징은 소매의 길이가 길다는 것이고 가무의 특성상 신분을 넘어 호화로운 의복을 착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여자의 포에는 팔뚝 부분에 장식선이 들어가 있고 안에는 속옷을 입었다는 사실이 눈에 띈다.

끝으로 종교·신앙 관련 복식문화에서 승려는 중국이나 서역에서 전래된 검은색으로 지은 衲衣를 입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神仙들은 하늘을 나는 특성을 강조한 날개옷, 갈래옷, 깃털옷을 착용했다. 火神과 農事神 등은 수식이 전혀 없는 간단한 띠를 두른 袍를 입어 일반백성의 실생활과 관련

36) 이옥, 고구려 민족형성과 사회, 교보문고, 1984, pp.169~170

37) 전게서, p.171

38) 이두현, 한국연극사, 한국문화사대계, vol. 4, 고려대학교, 1970, p.891

39) 전게서, 1984, p.173

된 神임을 표현했다. 아울러 흰 옷, 검은 옷, 水草옷을 입은 무당의 존재도 추정해 볼 수 있었다.

參考文獻

1. 구보 노리따다 저, 최준식 역, 도교사, 분도출판사, 1990
2. 김부식, 이병도 역주,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1994
3. 김임규, 이윤희, 장준식 공저, 한국민족문화의식, 정훈출판사, 1992
4. 김정배, 유재신 역음, 엄성홍 역, 중국학계의 고구려사 인식, 대륙연구소 출판부, 1991
5. 김정호, 고구려 고분벽화복식과 사회계층,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6. 김철준, 한국고대사회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0
7. 무함마드 간수, 신라·서역교류사, 단국대학교출판부, 1994
8. 박경자, 한국복식논고, 신구문화사, 1983
9. 신라산업경제의 신연구, 신라문화재학술발표회논문집 제13집, 서경문화사, 1992
10. 윤세영 저, 고분출토 부장품 연구, 고대민족문화연구소 출판부, 1988
11. 와타나베 쇼오코 저, 한경수 역, 불교사의 전개, 불교시대사, 1992
12. 이여성, 조선복식고, 백양당, 1947
13. 이육, 고구려 민족형성과 사회, 교보문고, 1984
14. 이형구, 한국고대문화의 기원, 도서출판까치, 1991
15. 일연, 리상호 역, 삼국유사, 신서원, 1990
16. 임혜봉, 불교사 100장면, 가람기획, 1994
17. 정경희, 한국고대사회문화연구, 일지사, 1990
18. 조선고대 및 중세초기사 연구, 교육도서출판사, 1992
19. 조선 미술사, 조선 미술가 동맹 편, 한마당, 1989

20. 최무장 역, 고구려 발해문화, 집문당, 1985
21. 한국고대사론, 한길역사강좌12, 한길사, 1988
22. 한국방송공사, 고구려 고분벽화, 1994
23. 한국학기초자료선집(고대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24. 홍희유, 조선 중세 수공업사 연구, 지양사, 1989

ABSTRACT

Among many different approaches of study of history of Kokuryo clothing culture, this study attempted to understand the costume by including political, militarial, economical, cultural, and religious aspects of Kokuryo society. It also included pictures in mural tumbs and old studies in Kokuryo costume.

Clothing culture related to political life clearly differentiated social status by restricting styles and colors of clothes according to peoples social status. Generally people in high social status wore clothes with detailed decorations in variety of colors, and also used more fabrics than people in low social status. Costume was also affected by military life style that needed to meet the vigorous physical activities. High rank warriors wore iron scaled shielded clothes with red decoration on it which identified different ranks of the warriors.

Economy also contributed its role to affect the clothing styles in Kokuryo. Baseed on old studies of costume, this study focused on people's life styles that included hunting and weaving. Hunting clothes were differentiated by decorating with feathers. Jowoguan(鳥羽冠) is one of the exemples. Since weaving was a major economic power or factor, silk and flax

were very popular. People even used those fabrics to pay tax. Regarding cultural aspect, this study emphasized on song and dance wear along with active wear. Song and dance wear specially decorated with poka dots, however mens and womens wear were clearly distinguished. Unlike other clothes that were restricted in colors and styles, song and dance wear were decorated in variety of colors.

Lastly this study presents religious aspects

of Kokuryo costume. Monks wore black clothing(衲衣) that was influenced from China and the Western Regions(西域). To emphasize their religious power, Gods in the pictures of mural tumbs wore clothes with wings and feathers. God of fire and agriculture wore simple dresses without much decorations which represented simple life style of working class.